

# “식상해진 ‘로지’ 외면”... 스토리 있는 ‘페르소나 AI’ 뜬다

AI 인플루언서, 시장 반응 냉담  
스토리텔링 부족·신선함 상실 원인  
외모 중심·정체성 부족 등 AI 한계  
개인화된 경험 제공 AI로 시장 변화  
인간적 상호작용·역할 중심 AI 초점

인플루언서 인공지능(AI) 휴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AI 휴먼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한 AI 캐릭터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3D 인간 형상에 AI 기술을 입혀 만든 존재다. 인플루언서 AI 휴먼은 SNS 인플루언서로서 모델활동을 전개하는 AI 휴먼들을 뜻한다. 한때 인간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큰 인기를 구가했지만 현재는 미국의 릴 미켈라(Lil miq uela) 등 일부 AI 휴먼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델이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27일 ‘메트로 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후로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한 인플루언서 AI 휴먼 대다수가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때 200여 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롯데홈쇼핑의 ‘루시’ 정도만이 간간히 활동을



AI 휴먼 로지의 모습. 로지는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인플루언서 AI 휴먼으로 인스타그램에서 17만 5000여 명의 팔로워를 확보 중이지만 최근 별다른 광고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로지 인스타그램

전개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AI 휴먼은 지난 2021~2022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타고 단기간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했다. 실존 인물과 달리 체력과 물리적 한계가 없는 것은 물론 다양한 논란에서 자유로워 실제 인간 모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성과도 있었다. 사이더스 스튜디오 엑스가 제작한 AI 휴먼 로지는

반얀트리 호텔, 웨보레 전기차 등 광고에 출연해 2021년 한 해 동안 1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반면 2024년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모델은 거의 없다. 과거와 달리 영상 광고 등에 출연 중인 AI 휴먼은 없으며 대부분 화보 작업에 그친다.

그나마 AI 휴먼 활동을 펼치며 시도 중인 곳은 롯데홈쇼핑이 있지만 이마저도 과거처럼 휴먼 AI를 광고 모델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는 다소 멀어졌다. 롯데

홈쇼핑은 여전히 자체 모델 AI 휴먼 루시를 활용한 패션프로그램 ‘루시톡라이브’를 진행 중이지만 과거와 달리 공격적인 모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난달 ‘스페인·포르투갈9일’ 패키지 여행상품 판매에서 최유나 쇼호스트의 얼굴과 동작 영상에 AI 이미지 생성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쇼호스트를 시도했다.

김연수 롯데홈쇼핑 CX부문장은 “향후 보다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인플루언서 AI 휴먼이 실제 인간 모델과는 달리 외모 외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다 광고 모델 활동 외 제2의 콘텐츠 활동이 부족해 시장의 외면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2021~2022년은 AI 휴먼이라는 신기술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지만 현재 AI 휴먼 기술은 다소 식상해진 과거의 기술이 됐다”며 “인스타그램 활동 외 별다른 스토리를 갖지 못하는 이들은 외모가 풍기는 이미지만으로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미 신기술의 참신함이 사라진 이상 인간 모델보다 나은 점을 찾기 어렵

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언서 AI 휴먼이 급격히 사양길을 걷고 있지만 AI 휴먼 시장 자체가 침체 중인 것만은 아니다.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시작한 생성형 AI 이후 고도화된 페르소나 AI는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페르소나 AI’란 이용자와 상호작용에서 일정한 성격, 역할, 스타일 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챗봇형 AI 휴먼이다. 미국 대형 벤처투자사 앤더슨 호로위츠 조사결과에 따르면 페르소나 AI를 서비스하는 ‘캐릭터.AI(Character.AI)’가 지난 8월 인기를 얻은 앱 2위를 차지했다.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또한 주요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난달에는 ‘더팩트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수상하는 등 인기기도를 달리고 있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AI 휴먼이라고 하는 큰 시장 내에서 광고 등을 수행하는 모델형 AI 휴먼이 각광받지 못하는 것뿐, 현재 AI 휴먼은 TTS(음성합성 기술)와 실존인물과의 대화와 차이가 없는 생성형 AI의 발달로 어느때보다도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LG, ‘소프트 V2X’로 교통사고 예방 앞장

베를린서 열린 5GAA 회의 참가  
자체 개발 교통안전 솔루션 공개  
도로 상황·교통신호 등 정보 제공

LG전자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한다. 교통사고를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자체 교통안전 통합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독일 베를린에서 2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진행된 5G 오토모티브 어소시에이션(5GAA) 회의에 참가해 소프트 V2X 등 교통안전 통합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소프트 V2X는 V2X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5G V2X 교통안전 솔루션이다.

보행자 및 차량의 위치, 방향, 속도 등의 데이터를 익명화해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차량과 보행자 간 상호 공유 및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 가능성을 알려준다.

특히 소프트 V2X는 도로에 있는 스마트 RSU(노변기지국)와 연동해 인근 도로 상황이나 교통신호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자율주행차량 및 배송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5GAA는 글로벌 차량 통신 연합체로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완성차 업체와 보쉬, 콘티넨탈 등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LG전자는 2016년 5GAA 설립 당시 참여한 창립 멤버다.

LG전자는 이번 회의 기간 중 베를린 시내 도로에서 소프트 V2X를 활용한 교통안전 통합 솔루션을 시연했다.

베를린 내 5.6km 길이의 도로를 오가는 차량과 셔틀버스에 탄 탑승객들은 다양한 LG전자의 V2X 기술을 체험했



LG전자 CTO부문 C&M표준연구소 김학성 연구위원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5GAA에서 ‘V2X의 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단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LG전자의 V2X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다. 주행 중인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 교차로에 설치된 스마트 RSU나 Soft V2X 앱 단말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Soft V2X 솔루션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알려 감속 등 사고 회피를 유도한다.

도로 내 작업자가 있는 상황, 응급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알림을 제공한다.

회의 참석자와 전문가들은 직접 이 솔루션을 체험했다. 이들은 LG전자의 우수한 교통안전 통합 솔루션의 효과와 완성도를 호평했다.

LG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교통안전 통합 솔루션은 유럽에서 주로 활용하는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V2X 표준에 호환되는 기술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5GAA 회의에서는 북미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SAE(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 V2X 표준을 적용한 소프트 V2X를 선보였다.

아울러 LG전자는 5GAA 회원사와 완성차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추가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학성 LG전자 CTO부문 C&M표준연구소 연구위원이 ‘V2X의 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단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실증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V2X 기술의 궁극적인 진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LG전자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3곳과 강원도 강릉시 청산면 일대, 세종시 나성동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송도에서도 민-관 협력 체험형 서비스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

세종시 실증 사업에서는 사업 개시 이후 6개월 간 위험 상황(차량 간 사고 위험, 차량-보행자 간 사고 위험 등)이 1143회 발생했다. 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을 받은 보행자 및 운전자의 80.1%가 이동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였다. 또 1만3051건으로 가장 많은 위험 상황 알림이 발생한 서울시 실증 사업에서는 이용자의 73.1%가 반응을 보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공항 체크인하고, 엔진 포토존에서 찰칵!”

삼성, ‘갤럭시 탭 S10 시리즈’ 팝업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S10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일까지 인기 트립웨어 브랜드 ‘로우로우(RAWROW)’와 함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로우로우 월드와이드 서울’에서 진행되는 팝업 스토어는 여행을 주제로 체험 공간이 구성됐다. 방문객들은 공항처럼 꾸며진 팝업 스토어에서 마치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갤럭시 탭 S10 시리즈’의 대화면과 S펜, 갤럭시 AI 기능 등 제품 특장점을 체험할 수 있다.

공항 체크인(Check-in) 카운터 콘셉트로 꾸며진 체험존에서는 로우로우 캐리어 안에 ‘갤럭시 탭 S10 시리즈’와 여러 소품을 더해 10kg에 가깝게 담아내는 미션을 진행한다.

공항 검색대(Security) 존에서는 최근 2세대에서 유행하는 ‘검색대 트레이 꾸미기’ 체험을 하고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다. 비행기 제트 엔진 모형과 갤럭시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갤럭시 탭 S10 시리즈 X 로우로우 팝업 스토어’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방문객들이 인증샷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시 탭 S10 시리즈’로 꾸며진 대형 포토존에서는 색다른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팝업 스토어에서 체험 미션을 모두 완료한 방문객들에게 쿨션 키링과 로우로우 제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SNS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한 방문객에게 인증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 또는 미니 파우치 등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팝업 스토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구남영 기자

## LGU+, ESG 평가서 종합 A등급 획득

사회부문 ‘A+’, 한 단계 상승

LG유플러스가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종합 A(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7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는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의 리스크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LG유플러스는 종합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부문 ‘A+’

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LG유플러스는 연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핵심 주제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를 선정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소개하기도 했다.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조명받았다. LG유플러스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해 대전 R&D센터에 1000kW급 자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구남영 기자